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3>



사람이 먼저다

알라위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농부는 자기 마을에 부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서 부처님을 뵈러 가려고 하였습니...

일어나서 설법하는 곳으로 오려 했다가 황소를 찾아 온종일 헤매었을 터이니 얼마나 피곤하였겠고,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배고픔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없느니라... (법구경> 203계송의 인연이야기)

배고픈 농부에게 밥을 먼저 주신 이유는 어떤 교리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

농부는 부처님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밥을 다 먹고 오자 그제서야 부처님은 차례로 밥을 배부셨습니...

처를 부처님께서 밝혀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종교계에서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적 극적으로 해결해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 이미지(중국역경원 역경위원)



지상 백고좌

월운 스님

(서울 보문사 주지)

최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불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법당과 길거리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존재합니다...

경제 급성장에 정신적 성숙 못따라가 난관 봉착 청년빈을 최고 가치로 여긴 선조들의 지혜 배워야

생인 이유는 불성에 무명이라는 때가 문었기 때문입니다. 불성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중 사대로 형성된 우리 육신은 감각을 느끼는 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부처,



월운 스님은 예불문이나 반야심경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바른 신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요.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개발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는 19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IQ(지능지수)를 사용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EQ(감성지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the book '내사주 내가 풀다' (My Astrology I Solve). It features a book cover image, a quote: '천리마도 때를 못 만나면 소금수레를 끈다.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and a list of key concepts: '음양에서 오행이 발생하고 10간 12지로 발전하는 순환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 '오행의 원리도인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흐름도', '인간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도 알 수 있는 육친의 자세한 해설', '용신의-통일장이론인 중화용신에 대한 확실한 해석'.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여시아문' and the publisher '현대불교신문사'.

때 묻으면 중생



불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은 불교, 육바라밀의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화목한 가정은 살기좋은 세상 만드는 지름길 재물보시 보다 따뜻한 마음 나누는 것이 더 중요

각을 잃고 방황하는 뿔단배 같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정신적인 성장이 발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느끼다가 어려움이 부딪치면 꺾이고 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좌절을 맛보고,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원하는대로 살아가려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습성 때문입니다. 이런 때 불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까.

무소유는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입니다. 무소유는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넘쳐나는 요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바로 무소유 정신입니다. 청빈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옛 선인들의 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고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극에 있어서도 화합과 상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중도로써 이미 그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실천이 뒤따라야 해요. 큰스님 찾아다니면서 듣는 법문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듣는 이가 실천하지 않으면 공멸불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회때 가족 중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남편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탓할 것 없어

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남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네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남편도 믿으세요. 부처님에게 지심으로 절을 하듯 남편에게도 절을 해 보세요. 자신이 달라지면 자신의 주변이 변합니다.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이 화합하게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방향을 알면서도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도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가족간에 서로를 위해주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화평한 가정을 가꿀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셈이지요.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평화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은 보시입니다.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 다는 아니예요.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악업은 참회로도 다 갚지 못합니다. 참회로 갚아질 것 같으면 아첨에 죄 짓고 제네에 침투하면 된다는 말인데, 불교는 결코 그런 비사실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생을 거치면서 쌓여온 악업은 보시로써 갚아야 해요. 나쁜 일을 했으면 마땅히 좋은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인터넷 활용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가며 포교 매진

월운 스님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스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 스님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스님들의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들이 책이 모자라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공부를 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은사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엄격한 스승이다.

월운 스님은 자기계발을 위해 인터넷으로 세상을 만난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스님의 신세대식 공부 방법이다. 스님이 세상의 병혹함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1980년 서울 땅우동에 불교종합 병의원원을 개원했던 월운 스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의료진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자들의 무관심에 적지않은 상처를 받았다. 게다가 개신교에서 설립한 병원의 공격적 마케팅과 병의원 의료진에 대한 회유가 계속돼, 스님은 86년 병의원원의 문을 닫아야 했다.

스님은 요즘 불교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열심이다. 월간이 어려운 불우가정과 무의탁 노인, 군부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간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93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월운 스님은 1965년 합천 해인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1953년 영천 은해사에서 응준 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가수계한지 12년만의 일이었다. 1978년 서울에 자리를 정한 뒤 월운정사, 보문사를 창건했으며,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중앙호법원 부원장, 제도개혁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 입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뜻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갚는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복 짓는 불교 하지는 것도 육바라밀을 실천하지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땅에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부처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발심과 하심이 필요합니다. 큰 원력을 내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육바라밀 가운데 한 가지도 행할 수 없어요. 은산찰벽의 의단으로 발심하고 하심으로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적음 스님 (下)

김천 부근에 이르렀을 때 누워있던 해가 기울었다. 붉은 노을이 너른 들녘을 들들하고 있었다. 노을 비친 허공에 까마귀 몇 마리 서천(西天)을 향해 까악까악 울며 날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노을 비친 허공을, 들녘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가까이 시가지가 있었고 여기 저기 농가들도 보였다.

인심 좋은 어느 농가에 들러 저녁도 얻어먹고 허룻밤 잠자리도 얻어볼까 하다가 그만 포기했다. 심신이 지치기도 했지만 혹여 그의 정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서였다. 그리되면 그 자신이나 그 농가가 얼마나 난처할 것인가. 어두워가는 저녁녘에 찾아 온 김손을 먹여주고 재워주지 못하는 농가 주인이나 그 농가를 뒤로 하고 떠나는 김손의 뒷모습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



그림 · 문병성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나 둘씩 불빛이 켜지고 있는 농가의 풍경들 뿐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바람결에 일렁이는 드넓은 보리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울지, 됐다. 오늘 밤은 저기 저 보리밭에서 일박하면 되겠구나.' 성큼성큼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음이 꼭 가라앉았다. 아주 편안했다.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스님, 이리로 나오십시오." 뒤돌아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일순 무슨 나쁜 짓을 하려다 들린 아이처럼 주춤 부끄러움을 뒀으나 이내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자취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의 방에서 따서온 밥을 얻어먹고 얘기를 나누었다. 그 학생은 적음 스님과 동갑이였으며 처림에는 같지 않았으나 도반이었다.

이튿날 아침, 광양까지 떠스하게 얻어먹은 적음 스님은 학생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을 운운(云云)하고 굳은 약속을 나누고 작별했다. 좋은 밤이었다.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가 여름밤의 초롱초롱한 별들을 쳐다보며 지친 육신을 힐 작정을 했는데 착한 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하룻밤을 잘 보내고 나니 참으로 몸이 가벼웠다. 산중에 있다가 모처럼 보는 시가지는 낯설었

다. 번잡스럽고 어리둥절하고 숨막혔다. 그런 거리와 골목을 오고 가며 목욕을 두들었다. 탁발을 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 자재보살...

쌀을 한 움큼 주는 이도 있고, 동전 한 닢을 주는 이도 있고, 지폐 한장 주는 이도 있고. "우린 교회 믿어요." 이러면서 내치는 이도 있었다.

어느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이르러서였다. 목탁을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외자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다. 옛된 여자 보살이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대청마루엔 젊은 남자가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다. 갓 혼인한 신혼부부 같았다.

그들은 그에게도 수박을 권한 뒤 재미있다는 듯 이것저것을 물어 냈다. 잠시 땀을 식힌 뒤 그가 일어서자 신혼부부는 몇 장의 지폐를 그에게 전한 뒤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다. 머물던데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를 배웅했다.

스님들에게 있어 만행은 꼭 필요하다. 될 수 있으면 자주 만행을 행함으로써 세간의 이질모를 살필 수 있어 좋고 하심(下心) 기회가 생겨 좋다. 그것은 수행자에게 알게 모르게 약이 될 수

'수행의 약' 삼아 떠나는 만행길에서 하심배워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저녁녘에 쌀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역 앞에 찾아들었다. 식당이라면 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쌀집을 찾은 필요가 없었을 터였기 때문이었다. '서울식당'이란 식당.

밥에 젖은 후줄근한 물갈래 그기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여자는 선풍기를 돌려주고 물수건과 찬 보리차를 갖다 주었다. 시주 받은 쌀을 기계이 받아들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깨끗한 방을 내어 그를 묵게 했다. 여섯 살인가 일곱 살 쯤 되었을 법한 주인 보살의 이쁜 딸도 금방 그를 따라왔다. 그는 행복했고 노독(路毒)을 있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 황야산 저지사 일주문을 들어서며 그는 황홀했다. 대웅전 뒤 하늘을 찌를 듯 하늘에 솟아 있는 소나무를 위로, 안개 뿌우영게 휘둘린 그 위로 흰 화들이 선경인 듯 날고 있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 이른 아침의 황야산 저지사. 안개 뿌연 소나무들 사이로 흰 화들이 날고 있는 저지사.

스님 생애 만행의 한 가운데 잠처럼 찍혀있는 그때 그 여름의 기억들을 잊지 못하겠노라고 그는 되뇌었다. 그 때, 객사에서 만난 속리산 법주사 원주 스님. 그이와 함께 보은을 장터 좌판에서 참외와 막국수 등을 사막던 일. 법주사 일주문 못미처 있는 개울 옆의 수정암. 저녁 공양을 앞둔 어린 비구니스님들이 개울에서 깔깔거리며 장난치던 모습을. 그것들이 아직도 그의 뇌리에 살아남아 있다. 그것들이 아직도 살아 그를 먼 기억의 오솔길로 내 놓고 있다. ■ 봉화 청령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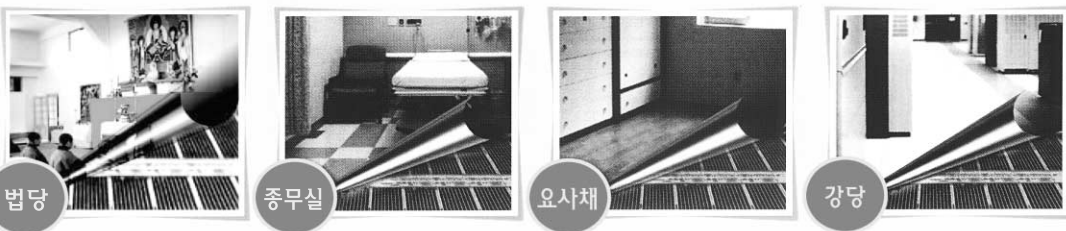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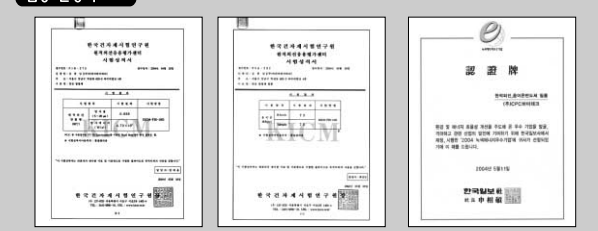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세계 7개국 발명특어를 획득한 수입원제품. 직경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개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역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구분	심아전력(축열식)	전기판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1(㎡)	17(ℓ)	12(kg)	43.2(kwh)
난방비(평당)	5,996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시료명	음이온(on/cc)	방사율	방사에너지
발열필름	158	발급번호	kfi-403
		90.3% 3.64 × 10 ²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 080-017-0100, 지역문의 : 043)221-6006